

라마다플라자 총지배인에 최장원씨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이 롯데호텔 부총지배인 출신 최장원(57)씨를 총지배인으로 영입했다.
최 총지배인은 지난 1979년 롯데호텔에 입사, 올 2월까지 30여년 동안 롯데호텔의 객실 팀과 영업팀, 경영개선팀을 거쳐 롯데호텔 부총지배인과 롯데시티호텔 대표이사 겸 총지배인을 역임한 정통 호텔리어이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최 총지배인 영입을 계기로 경영혁신과 품질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객서비스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120개의 객실과 1층 멀리스, 2층 휴트니스&스파, 테라피센터, 3층 일식당, 4~5층 연회장, 17층 파라뷰 레스토랑&바를 갖춘 광주권 최초의 특1급 호텔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강진 '아트팝' 장학금 2000만원 전달

강진 '아트팝' 영농법인(대표 김세배·사진)은 지난 7일 지역 환원사업 일환으로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전달했다. 1만2500명 규모로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아트팝 영농조합법인은 2004년 100만 불 전남농수산물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생산된 물량의 70%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충주재단본부=남희희기자 choul@kwangju.co.kr

사토요지 이사장 장학금 전달

사토요지(佐藤洋治) 원아시아(OAC) 재단 이사장이 8일 오후 호남대(총장 서강석)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교양강좌 '아시아공동체론'의 초청 특강을 마친 뒤, 아시아공동체론 수강 중 성적 우수자 24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내일 심장혈관영상 심포지엄

전남대병원 등이 공동 개최하는 제5차 심장혈관영상 심포지엄(조직위원장 흥영준 전남대병원 교수·사진)이 10일 오전 8시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통합전산센터 오늘 기술세미나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택곤·사진)는 9일 오후 1시 광주센터 대강당에서 센터 '차세대 데이터센터 운영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월출산 라이온스클럽 조명희 회장 취임

국제라이온스 355-B2지구 월출산 여성라이온스클럽 조명희씨가 10일 오후 3시30분 영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임영호·김명자씨 장남 융채(광주 도시철도공사)군 백상중·정영화 씨 장녀 선흥(영주초등학교 교사)양 =11일(토) 오전 11시 30분 문흥동 성당(문흥고가 맡)

▲신홍수(평동주유소 대표)·서덕례씨 막내 혜성군 강영수·오점례씨 장녀 순옥양=12일(일) 낮 12시 콜롬버스웨딩홀 2층 아도니스홀.

종친회

▲한국 범죄씨 대종연합회(회장 최남용) 2011년도 정기총회=11일(토) 오후 6시 30분 금남로5가 연합회 사무실 062-236-3220.

▲전주리씨 여성이화회(회장 이보희) 17회 정기총회=13일(월) 오

6·25 참전 故김범식 중사 61년만에 화랑무공훈장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금에서도 찾게 돼 감개 무량합니다."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이 전쟁 61년만에 주인을 찾았다. 육군본부는 지난 1일 전북 춘천 참전용사 고(故) 김범식 일등중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고 김 중사는 대신해 아들 김학욱(46·광주시 동구 운림동)씨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고 김 중사는 지난 1949년 7월 19살의 어린 나이로 자원입대를 해 5년 동안 육군에 복무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과 맞서 싸웠고, 1951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지난 80년 2월 병으로 사망한 뒤 김 중사는 유품으로 남긴 훈장증이 사라졌지만, 최근 가족들은 육군본부에 훈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결국 61년 만에 훈장을 수령하게 됐다.

훈장을 대신 받은 김학욱씨는 "비록 아버지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국가에서 끝까지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움과 키움' 네트워크 김기현 이사장

'트움과 키움'. 생소하기만 하다. 씨앗을 틔워 푸릇푸릇한 새싹을 만들고, 새싹을 키워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듯 지역사회 관리와 도움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란다. 아이들의 꿈이 나무가 되면 이후에는 공원이 되고 숲이 되어 희망을 선물한다고 한다.

트움과 키움 네트워크 김기현(43·수치과의원장) 이사장은 "트움과 키움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페어 스타트'(Fair Start) 운동의 일환

이다"고 밝혔다.

첫 시작은 지난 2007년 광주지역 치과의사 40여명이 치과 치료 후 나오는 폐금을 판매해 아동센터 아이들을 돋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 치과의사는 물론, 의사, 약사, 한의사, 정치인, 교수 등 100여명이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트움과 키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는 지역 아동센터 40여곳과 협약을 맺고 '꿈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크게 '건강지킴이', '마음키움이', '문화트움이' 등 3가지 영역에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다"고 말했다.

최우선 사업은 건강지킴이 사업이다. 아동센터 아이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치과 의사 1명이 아동센터 1~2곳을 직접 돌보고 있다. 치과진료를 치료 중심으로 예방중심으로 끊기고 치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문화사업에 투자하자는 취지다.

또 마음키움이 사업으로 집중력 결여, 과잉행동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남대 심리학과 오수성 교수와 아

이들의 심리검사부터 치료까지를 도맡아 하고 있다.

문화트움이 사업은 종교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독서토론, 영화관람, 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밴드활동을 지원하면서 4개 밴드가 활동중에 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계층에서 뜻을 모아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들의 튼튼한 짹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의 062-951-615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MBC 박동찬 국장

'춤을 추며 말하자' 폐내



박동찬(57) 광주MBC 사업국장이 말하기에 관한 책 '춤을 추며 말하자'(연장통 펴냄)를 끝냈다.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의 방법을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앙무새 같은 강좌를 거부하고, 말하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랜 시간 방송 진행자와 제작자로 활동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말을 잘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말은 곧 사람의 몸이며,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자 살아온 모습'이라고 정의한다. /김대성기자 bigkimg@

독립지사 박종식 선생 진도에 추모비



진도군은 지난 7일 군내면 송산마을에 항일 독립지사 고 박종식 선생 추모비를 제막했다.

추모비는 군민들과 출향 인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순수한 성금으로 제작됐으며, 제막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유가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출신인 박종식 선생은 지난 1929년 목포 상고 3학년 재학시절 목포지역 학생 항일투쟁 총집회를 개최, 유인물 1500장과 태극기 120매를 배포했다. 특히 광주학생항일운동 구속 학생 즉시 석방, 총독부 폭압정지 절대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항일 독립투쟁을 고취시켰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 선생은 이 공으로 지난 1993년 건국 45주년을 맞아 건국 포장을 받았다. /서부지재단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생활체육회 연합회장단 간담회



광주생활체육회는 최근 남구 프리도호텔에서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연합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조달청 농촌일손돕기 봉사



광주지방조달청은 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흥군 대서면 들녘에서 모내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리처드 기어 한국서 템플스테이 체험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가 한국을 방문, 전통 사찰 문화를 체험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사진전에 맞춰 오는 20일 방한하는 리처드 기어는 21일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만나고 경주 불국사를 방문,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8일 "리처드 기어가 자신의 사진전에 참석하는 한편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불교 신자인 그가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오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리처드 기어는 오는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긱스, 처제 이어 동생 장모와도 불륜



잇단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는 라이언 끽스(38·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동생 장모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영국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영국 스포츠전문지인 '미러풀'은 8일 끽스가 오래전부터 동생 아내의 친정 식구 모임에 자주 참석했으며 사부인 로렌이 레버(49)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미스 웨일스 출신 모델인 이모젠 토마스(29), 친동생의 아내인 나타샤 끽스(28)에 이어 이번엔 동생 아내의 어머니마저 그의 여성 권력에 동원된 셈이다.

이 언론은 끽스의 친동생인 로드리의 축구의 맡을 때 "긱스는

사부인 레버에게 편안함을 느꼈고 물은 결국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며 "매번 레버에게 근직한 농담을 하는 끽스에게 주위 사람들이 누차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도 폭로했다. 무려 8년간 끽스의 정부였던 나타샤가 그 기간에 끽스 말고 미혹인 다른 맨유 선수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3호실 062-941-4400.

▲이석연(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갑곡(영국 웨일즈 대학 교수)·경화재·부친상=발인 9일(목)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2.

소 062-973-9164.

▲한다주씨 별세 신덕진·창진·덕 님·덕례씨 모친상=발인 9일(목)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2.

謹 祀 故人의 慎福을 빙니다 弔

故 전 경 환 님(남/84세)
子/子婿 : 전주설 / 김경삼, 주철 / 신현주
女/婿 : 전숙자 / 김영신, 숙이 / 조재주,
형숙 / 오중민, 순임 / 서경승
• 호실201호
• 장자: 임실호국원
• 발인: 6월 10일
• 연락처: 227-4381

故 박 준 님(남/68세)
子/子婿 : 박경수 / 최진, 경호 / 김혜진
• 호실101호
• 발인: 6월 10일
• 연락처: 227-4385

마을과 지린 한한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인의 慎福을 빙니다 弔

故 이 금례 님(여/65세)
未 : 문정영
子/女 : 문수현, 문수희, 현길/임자연
女/婿 : 특창임/윤순복
• 발인: 6월 10일 08시00분
• 장자: 화순 동면 선영(영락)
• 연락처: 250-4455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임영호·김명자씨 장남 융채(광주 도시철도공사)군 백상중·정영화 씨 장녀 선흥(영주초등학교 교사)양 =11일(토) 오전 11시 30분 문흥동 성당(문흥고가 맡)

▲신홍수(평동주유소 대표)·서덕례씨 막내 혜성군 강영수·오점례씨 장녀 순옥양=12일(일) 낮 12시 콜롬버스웨딩홀 2층 아도니스